






건국60년

한국의 역사학과 역사의식

- 잃어버린 역사와 문화를 찾아서 -

박석홍 지음

건국60년 역사학 역사의식  역사교육 모두 혼미하다. 한국사는 고조선에서 대한민국까지 중국·일본·북한의 도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그 중에도 대한민국사는 정부 점인정 역사 교과서까지 혼란스럽다. 북한 일본 미국학계의  왜곡된 해석과 가설을 비껴거나 표절한 자학사관 논문과 저술이 아직도 큰소리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학은 일제식민사관의 큰 틀은 있었지만, 측면학 이태올르기 논쟁에서는 자유롭지 않다. 20세기 말  사회주의 국가 자멸에 이어 21세기 초 세계는 새로운 질서 개편을 위해 또 한번 요동치고 있다. 역사학은 이 격동기에 한국사회에 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정치 선전 선동의 도구로 전락했던 편향적  사관을 극복, 진실을 추구하는 역사학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

8. 해외 한국 학자 국내 사학계에 충격 (핀란드의 고송무, 일본 이진희 교수)

1) 고송무 교수 소련, 몽골 등 공산권의 한국학 연구소개

(1) 베 수미야바타르 몽골과학원 교수-부여(扶餘)국가 기원 바이칼 호 남단에서

[고조선 다음으로 한국고대사에 등장하는 부여(扶餘)국가가 바이칼 호 남단 부이르(Buir) 호수와 할хин골(Xalxingol) 강 유역의 북위 43~45도, 동경 20~25도 지역에서 기원했던 고대국가란 가설을 몽골과학원 베 수미야바타르 교수가 75년에 제시했음을 핀란드 헬싱키대 고송무 교수가 국내학계에 소개했다. 고송무 교수는 80년 1월 25일 세종호텔에서 열린 국어순화추진회 조찬회에서 베 수미야바타르 교수의 논문을 공개하고 공산권 국가 학자들의 한국학 연구에 대한 국내학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베 수미야바타르 교수는 75년 몽골과학원에서 펴낸 ‘몽골과 한민족 선조들의 인종·언어학적 상호관계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라는 저술에서 한민족의 한 줄기가 중앙아시아(현몽골 지역)의 부이르 호수 유역에서 유목생활을 하다가 이 지역에서 부여국을 만들고 이 부여국이 한반도에 들어왔다는 가설을 발표했다. 삼국유사·위서(魏書)·삼국사기의 인명, 지명, 종족명, 관직명 등을 몽골어로 해석하는 역사언어학적 접근에서 이 같은 사실을 구명한 베 수미야바타르 교수는 몽골 부리아트인들이 지금도 스스로 코리라고 부르는 것도 한민족의 기원과 코리아 어원의 신비도 풀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베 수미야바타르 교수는 삼국유사에 북부여 건국 장소로 언급된 흘승골(訖升骨)과 위서(魏書)의 “고리(藁離)에서 온 동명(東明)이 세 사람을 만나 흘승골에 이르렀다.”는 지역명은 몽골의 할хин골 강이며 삼국사기 고구려 건국기에 나오는 비류(沸流)는 몽골의 부이르 호수라고 비정하고 북부여가 몽골 지역에 건국했다는 사실은 광개토태문 비문으로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부여가 동진 중국문화와 만난 후 한자의 영향으로 고대 부여의 뿌리였던 유목의 자취와 몽골어가 퇴색되지만 그 흔적이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살아 있어 한국 고대문화 원류를 밝히는 고리들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신라의 뿌리도 중앙아시아의 거스르간(居西干·居瑟)에서 왔다고 주장하며 중앙아시아의 흉노 대이동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수미야바타르 교수의 비교 역사언어학적 한국고대사 해석은 지금까지 한문자구 해석에 억매어 한국고대사 무대를 축소해 왔던 구각을 벗기는 획기적인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 손보기 연대 박물관장은 부여국 영토가 바이칼 호 남단이라고 막연히 추정하고 있었는데 역사언어학으로 이를 구명한 것은 반도사관 극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경향신문 80.1.25. 사회면 머리기사 박석홍·이용 기자).

(2) 한민족 문화 뿌리 찾기

[한민족의 기원과 민족 이동을 밝히는 작업은 광복 후 인류학, 고고학, 민속학, 언어학, 문헌, 고증학 등 각 분야에서 열을 올리고 있으나 여러 학설이 난무할 뿐 설득력 있는 대답이 안 나왔다. 패전 후 일본의 고대사 인식체계를 바꾸기 위한 에가미(江上波夫) 교수의 기마민족설에 학계 일부가 동조했을 뿐이다. 일제식민사학에 맞서 단재, 위당, 손진태 등 민족사학자들이 한국사의 뿌리를 캐는 작업을 펴 한국고대사 무대를 만주 지역으로 확대시키긴 했으나 학문적인 설득력이 빈약했다. 건국 후 김상기 교수가 시경 3부의 잠부시등 등 문헌 연구에 의해 발표한 ‘한예맥 이동고’, ‘동이와 서용에 대하여’는 일제식민사학의 고대사 이해체계를 흔드는 충격이 됐으나 민족 이동 전체를 밝히는 데는 미흡했다. 이러한 문헌사학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 고고학이다. 고고학계는 한반도와 북구주 일대에 밀집 분포된 고인돌이 중국 동북 지역과 만주에 분포되고, 한반도와 바이칼 남단의 청동기문화의 유사성을 주목하고 고대 우리 민족의 이동 루트로 추정했으나 현지조사가 불가능해 검증이 불가능했다. 한국 민족문화 기원과 이동에 관한 학계의 연구가 정돈(停頓) 상태에서 몽골어와 한국어를 역사언어학적으로 검토해 민족의 이동로를 추정한 몽골학자의 가설은 한국고대사 논의의 새 지평을 여는 충격으로 기대되고 있다. 베 수미야바타르 교수는 고구려, 백제의 전신이었던 부여와 신라의 혁거세가 부이르호 유역과 중앙아시아와 연관 있다고 주장했다. 베 수미야바타르 교수는 거세(居世)가 신라를 세운 BC 57년은 훈족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며 중앙의 훈에 대항하다가 4~5만을 데리고 동쪽으로 사라진 구지(居西)왕자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불거내 이별찬 대대각간(상왕) 태대대로(우두머리) 태대형(높으신네) 등을 몽골어로 밝히고 몽고어 인명의 특징인 -게, -해, -태, -치, -찬 등도 고구려 신라의 관명, 인명에서 찾아냈다(남해 탈해 사찬). 학계는 몽골학술원에서 펴낸 한국 관계 연구 업적을 정부가 신속히 입수해 제공해 주길 바란다